

고흥·함평 조합장 성매매 의혹 수사

함평 농협 측 “허위 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제출

고흥 수협 “선거를 앞두고 음해세력의 모략이다” 주장

고흥 한 수협·함평 농협 조합장과 임직원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또 의혹을 받고 있는 농협 측이 ‘허위 사실’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경찰이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최근 여성단체가 제기한 고흥 수협과 함평 농협 임직원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진정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여성단체는 “고흥군 수협 조합장과 대의원, 이사, 감사 등 40여 명이 지난해 4월16일부터 19일 까지 해외 연수차 필리핀 마닐라를 다녀왔다”며 “이 중 일부가 집단으로 성매매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함평의 농협 임직원들이 지난 2017년 1월 베트남 다낭으로 해외연수를 떠나 현지에서 집단 성매매를 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우선 진정을 제기한 여성

단체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혐의점이 드러나면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지역 조합장과 임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또 성매매 지역이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과 필리핀 지역의 경찰과 공조 수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함평농협 측은 여성단체가 제기한 의혹이 ‘허위 이다’며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성매매 의혹과 함께 농협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장에 대해서도 병합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며 “현재는 관련 서류를 토대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고흥 수협 측은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집단 성매매 의혹을 살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세력이 진흙탕선거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 모 장애인 생활시설 창고 화재

16일 오전 10시32분께 광주시 광산구 모 장애인 생활시설 내 창고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26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시설 종사자 40여 명이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창고 일부가 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성서 남성 2명이 금은방 털어 도주

보성에서 남성 2명이 새벽시간에 금은방을 털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5분께 보성군 보성을 한 금은방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강와 유리를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 온 망치로 진열장을 부수고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은방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통근버스 중앙분리 화단 들이받아 17명 경상

16일 오전 6시55분께 영암군 삼호읍 편도 4차선 도로(목포~해남 방면)에서 A(57)씨가 몰던 모 회사 45인승 통근버스가 중앙분리 화단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 등 1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 안에는 총 3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가 차선 변경을 하던 화물자랑을 피하려다 난 사고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누범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구속’

음주운전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뒤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구속됐다.

충북 영동경찰서(서장 김영호)는 지난 5일 오후 9시10분께 영동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A(43·무직)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무려 9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심습 음주 운전자로 2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됐다 풀려났으며, 현재 누범기간이래도 경찰은 전했다.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다른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 범죄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음주운전과 보복·난폭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전한 영동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은행원 눈썰미로 보이스포싱 인출책 검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으려던 인출책이 은행원의 눈썰미에 달미를 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도움을 준 우리는 행 성서공단지점 A(43·여)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은행 영업이 끝난 후 폐쇄회로(CC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앞서 같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2차례에 걸쳐 보이스포싱 피해금을 찾은 남성이 나타나서다.

A씨는 남성이 다시 나타날 때 대비해 이상착의를 기억하며 수시로 폐쇄회로(CCTV)를 지켜보던 중이었다.

A씨는 재빨리 현금자동지급기(ATM)의 전원을 끄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탐문 수사를 벌여 B(30)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 암행어사’ 유람·페리선 안전관찰단 모집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제3기 유·도선 국민안전 현장 관찰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유선은 유람선처럼 관광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도선은 페리·여객선과 같이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운송하는 선박을 뜻한다.

현장 관찰단은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제주 포함) 등 5개 권역별 각 5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4~11월 8개월 간 유·도선 현장의 안정정책 이행실태를 살핀 뒤 위험요소를 제보하고 안전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된다. 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안전 관리 홍보도 나선다.

행안부는 이번 3기를 유·도선에 국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타 선박에 대해서도 현장 관찰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이다.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유·도선 수시 이용자나 선박 관련 경력·자격자를 우대한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현장 관찰단이 발견한 안전 위해요소와 제안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 즉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현장 관찰단은 지난 2017년 처음 도입돼 매년 4~11월 8개월 간 운영되고 있다. 1기는 99건, 2기는 114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뉴스



미세먼지 물러나고 즐거운 스케이트 기온이 내려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돌아온 16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 일곡지구 불법 쓰레기 매립지 환경영향조사 추진

악취·가스·침출수 유출 등 조사

결과 나오면 쓰레기 처리방향 결정

광주시 북구 일곡지구 근린공원 불법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해 광주시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일곡지구 시립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정부지 지하 쓰레기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북구에 예산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쓰레기 매립지 위에 건립하려는 청소년문화의집은 북구 다른 지역에 건립키로 하고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터파기가 이뤄진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악취, 가스누출,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영향과 주민안전성 등을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영향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 설명회를 한 뒤 매립지 처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곡지구 주민들도 조만간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회의를 갖고 불법매립 현황 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쓰레기 처리방안 등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말 일곡지구 근린공원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를 추진하던 중 지하 4~11m 지점에서 대규모 쓰레기 매립층이 발견되자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지하 4m 지점부터 아래로 6.5~7m까지 쓰레기 4200여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지난 1996년 북구의회 특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원부지 전체 매립량은 5~9만t으로 추정됐다.

시 검토 결과 매립된 쓰레기는 사업장 불법 폐기물여서 반출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환경영향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쓰레기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